

전남교육청,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온라인 교육 실시

위축·보호관찰 처분 학생, 생활·학교상담 1:1 지도

비행재범 방지와 학업중단 예방 위해 사업 추진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7일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2021.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실시간 온라인 화상교육(Zoom)을 실시했다.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은 학생지도에 열의와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와 학교상담을 일대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은 광주·목포·순천·해남보호관찰(지)소와 함께 2008년부터 비행재범 방지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는 결

연된 보호관찰 학생의 출석과 결석, 학교생활, 방과 후 활동 등 기초적인 학교생활 확인과 진로상담, 정서안정 등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생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한다.

이번 교육은 보호관찰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방지와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생활지도 및 상담방법, 보호관찰학생-교사 멘토링 운영절차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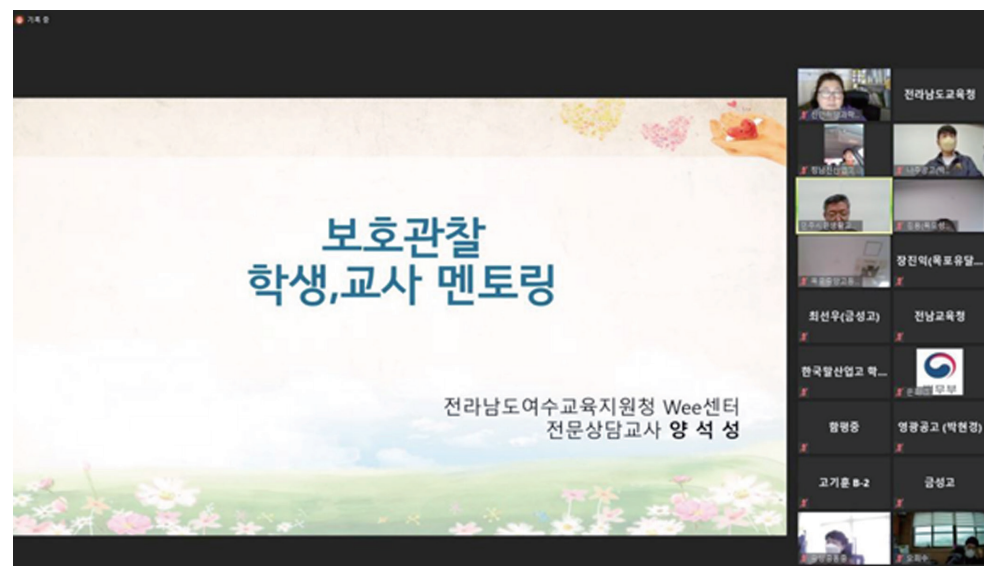
이 교육에서 양석성 전문상담교사는 2020년 멘티학생을 지도·상담했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순천보호관찰지소 남철호 과장은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소개와 생활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질의응답을 통해 유의 사항과 선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지도 방안도 소개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사는 "보호관찰제도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멘티학생을 지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멘티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과 마음의 안정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며 "적극적인 학생상담과 학생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현장을 위해 꼼꼼하게 살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7, 8월 담당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통해 보호관찰학생의 생활을 점검하고, 보호관찰대상 학생



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유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특별보호관찰위원과 한 달에 1회 이상 소통할 예정이다.

김정환기자

광주교대부설초, 제99회 어린이날 기념 '아리랑 숲 어울마당'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체험·숲 야생화 심기 체험·숲 놀이 체험



광주교대부설초가 제99회 어린이날을 맞아 지난 6-7일 이틀 동안 전교생을 대상으로 숲 관련 프로그램 '아리랑 숲 어울마당'을 개최했

다.

9일 광주교대부설초에 따르면 '아리랑 숲 어울마당'은 학교 주변 숲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 우리 숲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아리랑 숲 어울마당'은 ▲숲 해설사와 함께하는 숲 체험 ▲숲 야생화 심기 체험 ▲숲 놀이 체험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아리랑동산 면적에 따른 밀집도를 유지하며 이틀에 걸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 6일 1·3·5학년 학생들이, 지난 7일 2·4·6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개인별 체험을 극대화 했다.

최윤희기자

학생들은 숲 해설사의 설명을 통해 동·식물이 함께 살아가는 자연 생태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에게 인사를 건네는 방법, 나무와 친구가 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나만의 야생화 심기, 솔방울·도토리 줍기 등의 생생한 체험은 학생들에게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계기가 됐다.

광주교대부설초 최영순 교장은 "해설사의 설명으로 아리랑 숲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야생화를 직접 심어 보며 숲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보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숲과 함께 자라는 광주부설초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교육청 제2기 교육참여위원회, 새롭게 출발

위촉장 수여식 및 임사회 개최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란)은 6일 초의선 사실에서 제2기 무안교육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임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촉장 수여는 제2기 무안교육참여위원회의 학생대표위원인 전남예술고 신다현양(2학년)을 시작으로 꽃다발과 함께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교육참여위원회의 이해와 활동'

연수 및 임사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기 교육참여위원회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이었던 박상규 위원장이 재선출 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조미라 위원, 운영소위원장은 이주홍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2022학년도 남악·오룡지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교 조정(안)에 대한 자문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무안=이기성기자

장흥교육청, '놀이문화지도사'로 변신한

마을교사와 함께한 어린이날 행사 개최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호) 용산마을학교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마을 주민이 함께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마련했다.

용산면 번영회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 마을회관을 내어주고, 이장님은 손편지와 함께 아이들 간식비를 지원하였고, 토마토를 재배하는 농부는 토마토를 내놓았다. 뛰어노느라 배고플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김밥을 만들었다.

놀이활동은 지난 4월부터 4일까지 장흥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놀이문화지도사' 과정(15차시)을 이수한 마을교사 3명이 계획을 짜고 준비하여 지원했다. 딱지놀이, 바둑놀이, 신발던지기, 보물찾기, 000을 이겨라 가위바위보, 기다려봐 등 놀이를 하며 아이들은 신나는 어린이날을 만끽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기후평화를 상기하며, 종이호일로 감싼 김밥, 돌맹



이로 만든 보물어미표, 우유곽으로 만든 딱지 등 환경보호를 실천했다.

이처럼 마을활동가는 "아이들도 신나고, 어른들도 신나는 어린이날을 보냈습니다. 온 마을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셔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른들의 관심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온전히 사랑을 주는 그런 어른이 될 거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남교육청-조선대, 진로 맞춤 고교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역인재 육성' 협력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과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가 고등학교 진로진학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과 조선대학교는 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 지역인재 육성 및 진로 맞춤 고교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함으로써 전남의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합은 물론 지역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특히,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진로 맞춤형 교육과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에 상호 협조하고, 고등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공유하고 교원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남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광주전남지역 여러 대학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의학계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선대학교도 이에 부응해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55%로 확대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학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남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우리 지역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